[게임스토리 기획서\_V1.05\_240116]

[구체적인 스토리]

[챕터1]

- 가족끼리 놀이공원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옴(a가 들고있던 오르골로 서서히 줌인)

- a는 자신의 방에서, b는 1층 거실에서 시작이 된다.

- 숨바꼭질을 하고있었는지 꾀꼬리를 외치는 b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린다.

- a가 방에 있다고 대답한 후, 서로 만나기 위해 a는 복도로, b는 2층으로 향한다.

- 가는 길목에 상자들이 있어, 상자를 밀어내며 나아간다.

- 서로 만나고 b의 방으로 간다.

- b가 방에서 오르골을 챙긴다. (오르골이 b의 것이라 인식함)

- b의 방에서 같이 미니게임을 한다.

- 미니게임이 끝나고 a의 머리속에 생일날의 기억이 떠오른다.

(아이들이 노는 모습과/아버지가 만든 케이크/어머니의 건망증-어머니는 대사로만 등장)

- b가 이젠 뭐하고 놀지 묻자, a가 피터팬 놀이를 하는 것이 어떻냐고 한다.

- a는 피터팬 역할, b는 요정의 역할을 맡는다(여기서 그림자 능력과 요정의 날개 능력을 얻음)

- 그렇게 자신들의 역할을 정하던 중, 문 앞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온다.

[챕터2]

- 곧이어 문이 부서지며 괴물이 등장하고, 둘은 괴물을 피해 복도로 나간다.

- 그러나 괴물이 남아있던 상자를 던져, 1층으로 가는 계단이 막힌다.

**-** 하는수 없이 화장실로 도망가서 괴물을 유인 후 다시 복도로 도망친다.

- 괴물이 화장실을 나오기 전 서랍장 속에 숨은 뒤, 그림자로 유인해 상자를 부순다.

-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, b가 넘어지며 오르골이 연주된다.

- 왠지 데자뷰를 느끼는 a.

- 그때 따라오던 괴물이 멈춰선 것을 보고 괴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알게된다.

- 일단 오르골을 챙긴 후, 괴물과 멀리 떨어진다.

- b가 괴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다.

- a가 자신의 그림자가 더 커지면 좋겠다고 한다.

- 그러자 b가 손전등을 가까이 하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.

- 그렇게 손전등을 찾으러 지하실로 간다.

- 지하실은 열쇠가 두개 필요했다.

- 주방과 안방에서 열쇠를 구한 후 지하실로 내려간다.

- 안방에서 부모님이 싸우던 기억이 난다.

- 지하실로 쫒아온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, 손전등을 키고 그림자를 커지게 한다.

- 괴물이 바닥에 뚫린 구멍에 빠지고, 둘은 지하실을 빠져나온다.

- 여기서 나온 완전한 악보를 b가 챙긴다.

[챕터3]

- 현관문을 열었으나, 똑같은 1층 복도가 눈앞에 보인다.

(아직 추억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함)

- b가 여긴 괴물도 없으니까, 다시 같이 놀자고 함.

- 어리둥절한 a가 계속 이상한 기억이 난다고 b에게 말한다.

- b가 아까부터 계속 무슨 소리냐며 말을 돌린다.

(괴물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)

- a가 계속 기억에 대해 묻자, b가 돌변하며 왜 계속 기억을 하려 하느냐라고 말한다.

(잊어버린 기억이 궁금한 자아와 자기방어의 싸움?)

- a가 b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, b가 가스라이팅(?)을 시전한다.

- 그리고 ‘그렇게 기억이 궁금하면 한번 봐 보든가’ 라는 식으로 악보를 건네줌.

- 여기서 b가 죽은 날의 기억이 돌아옴.

(b가 자신을 몰라보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자, 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b에게 화를 냄.

b가 울면서 뛰쳐나가다,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짐. )

- b의 죽음을 알게된 a가 충격을 받은채로 b의 정체를 묻는다.

- b가 자신은 a라고 말을 한 후, 모습이 무섭게 변한다.

- 그때 진짜b가 나타난다.

- 괴물은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며 a가 나가지 못하게 한다.

- 진짜b가 그때마다 반론을 하며 a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.

- 괴물을 무찌르고 a가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, b가 잘 말을 해주면서 a의 마음을 다독여준다.

- 꿈에서 나가기 전, b가 오르골 악보에 fine라고 적어준다.

(너무 행복한 기억에만 머물러있으려 하지마라? / 괜찮아)

- 꿈에서 깨어나니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.

(괴물소리의 근원)

- 혼날줄 알았지만 따듯하게 안아주는 아버지.

- 서로 대화를 나누고, 마지막으로 b의 무덤으로 간다.

- 오르골을 무덤에 놔두고 아버지와 손을 잡고 집에돌아간다.